

대학 태권도 시범단원이 인식하는 지도자신뢰가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Leadership Trust as Perceived by University Taekwondo Demonstration Team Members on Performance

장세용(가천대학교, 조교수) · 양대승*(가천대학교, 교수)

Jang, Seyong · Yang, Dae-Seung*(Gachon Univ.)

요약 이 연구는 대학 태권도 선수들이 인식하는 지도자신뢰가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들 관계에 연구 참가자들의 배경변인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2021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수도권 Y, G, K, K대학에 재학중인 태권도 시범단원 214명을 비확률표집방법의 목적적 표집방법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후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6.0, AMO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도자신뢰는 경기력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도자신뢰와 경기력의 관계는 수련기간에 따른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태권도, 태권도시범, 지도자신뢰, 경기력

Abstract This study confirmed the effect that trust on the leader, of which university taekwondo athletes are aware, has on their performance, and verifies the moderating effect according to the background variables of the study participants in these relationships. To this end, 214 taekwondo demonstration team members enrolled in universities loca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ere selected via purposeful sampling, which is a non-probability sampling method.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IBM SPSS 26.0 and AMOS 26.0 programs, and the following results were derived. First, it was found that leadership trus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athletes' performance. Second, it was verifi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hip trust and performance has a moderating effect in accordance with the length of the training period.

Key words: Taekwondo, Taekwondo demonstration, Leadership Trust, Performance

*naganolala@gachon.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스포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은 종목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개인 기록종목과 대인종목, 그리고 단체종목이라는 큰 틀로 구성되는 스포츠에서의 경쟁은 각각의 종목 특성에 따라 남들보다 시간을 얼마나 빠르게 단축하였는가? 또는 상대 혹은 상대 팀보다 많은 점수를 획득 하였는가?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종목 특성에 따라 경기방식과 경쟁의 체계가 매우 다르게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는 모든 종목에서 동일하게 각 종목에 맞는 체격과 체력, 전술과 기술,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강현우, 장세용, 2021a, 2021b; 최진철, 장세용, 2017).

그중 종목의 특성을 막론하고 기술 수준이 거의 완성 상태에 도달한 선수들의 경쟁에서는 심리적인 요인이 최상수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장세용, 2019a; Jang, & So, 2017a, 2017b). 특히 이러한 경쟁 과정에서 팀의 공동 목표인 승리를 쟁취하는 것은 모든 팀의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기현장에서의 승리를 위해 현장 지도자들은 최상수행을 도출해내기 위한 방안으로 훈련현장에서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며, 그들의 감정과 훈련에 대한 욕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선수들의 내·외적 성장을 돕기 위해 노력한다(노충균, 장세용, 2016; 장세용, 2019b).

마찬가지로 선수들 역시 자신이 속한 팀의 지도자와 동료들을 믿고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최상수행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팀의 지도자와 선수들로 구성된 구성원들 간의 신뢰는 스포츠 경기 현장에서 최상수행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볼 수 있다(이경현, 장세용, 2019; 장세용, 2019b). 실제 선수들이 지도자의 전술이나 전략, 혹은 훈련 외적인 부분에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경우 선수들이 아무리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였다고 해도 경기 결과가 좋지 못한 사례는 다양한 종목에서 매우 빈번하

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이다(노충균, 장세용, 2016; Jang, & So, 2017b). 이러한 결과는 선수들과 지도자와의 관계가 긍정적이지 않거나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경기에서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의미하며(노충균, 장세용, 2016; Jang & So, 2017b; Jowett & Poczwardowski, 2007), 지도자에 대한 선수들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 상황에서 지도자에 대한 선수들의 신뢰는 훈련과정과 경기현장에서 선수들이 인식하는 인지적인 영역과 기술을 포함하는 행동적 영역에 걸쳐 매우 광범위하게 작용하여 궁극적으로 최상수행에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 보고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장세용, 2019; Jang & So, 2017b). 또한 스포츠 현장에서의 지도자 신뢰는 일반적으로 선수들이 본인이 소속된 팀의 지도자를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한다(조민선, 김현식, 이재행, 2004). 다시 말해서 지도자 신뢰는 선수들이 느끼는 지도자의 긍정적 감정을 포함하며, 훈련과정에서 경험하는 지도자의 언어·행동적 피드백에 대한 반응의 정도로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다(장세용, 2019; Jang & So, 2017b).

특히, 엘리트선수들의 지도자에 대한 강한 신뢰형성은 훈련 및 경기 상황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현식, 2007; 이주형, 2011). 이와 관련된 몇 편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도자에 대한 선수들의 신뢰가 높게 형성될수록 훈련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운동 태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결과적으로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박성립, 2019). 또한 선수들의 최상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다양한 심리요인에도 지도자에 대한 선수들의 신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고하며 지도자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박성립, 2019; 장세용, 2019; Jang & So, 2017b).

앞서 언급한 연구들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최근 스포츠 심리학 분야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험실 중심이 아닌 실제현장 중심의 관점을 충족시키는 매우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선수들이 인식하는 지도자 신뢰가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들은 매우 한정적인 종목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경기력과 직접적인 관련성 보다는 경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자신감과 같은 몇 가지 심리변인들과 단순 관련성만을 검증한 연구가 대부분이라는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인식하는 지도자 신뢰와 경기력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또는 앞서 언급한 지도자 신뢰와 경기력의 관계에 대한 해당 선수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현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중 태권도는 전 세계적인 스포츠로 자리한 겨루기 종목과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아시안게임의 정식종목으로 포함된 품새 종목을 넘어서 새로운 종목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시범 종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태권도의 홍보 수단으로 발전해온 시범 종목은 태권도 보급 및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넘어서서, 현재는 태권도를 대표하는 겨루기 품새 종목과 함께 스포츠로서의 경기종목으로 인정받고 있다(김은지, 정명규, 임신자, 2018). 또한 태권도 시범 종목이 격파와 기술 발휘 과정에서 요구되는 예술적인 요소들의 구성이 경기의 승패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시범을 구성하는 지도자의 역량이 경기력의 상당부분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태권도 시범 종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진행된 태권도 시범과 관련된 연구들이 비교적 초기 수준이라는 점에서 기술적으로 완성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대학 태권도 시범 단원들이 인식하는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특히 지도자신뢰와 경기력의 관계를 선수들의 일반적 특성을 바탕으로 보다 세분화 하여 차이를 검증하는 것은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 제공은 물론, 후속연구를 위한 이론적 접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접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이 연구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태권도 시범단원들이 인식하는 지도자 신뢰가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지도자 신뢰와 경기력의 관계에 대한 시범단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현장과 후속 연구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4개 대학의 태권도 관련 학과 시범단원을 214명을 비확률표집방법(non probability sampling)의 목적적 표집방법(purpose sampling method)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일반적 특성

구분	수준	n	%
성별	남자	146	68.2
	여자	68	31.8
학년	저학년	143	66.8
	고학년	71	33.2
수련기간	10년 미만	112	52.3
	11년 이상	102	47.7
국내입상	4회 미만	126	58.9
	5회 이상	88	41.1
국제입상	무	132	61.7
	유	82	38.3
전체		214	100.0

2. 조사도구

설정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지도자 신뢰 검사지와 경기력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구체적

으로 먼저, 시범단원들이 인식하는 지도자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Clark & Payne(1997)가 개발하고, 박성립(2019)의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5개 요인 15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경기력은 이경현, 강현우(2019)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검사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자신감(5문항), 집중력(4문항), 정신력(3문항)의 총 3개 요인 12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3. 자료수집 절차

자료 수집을 위하여 2021년 3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수도권에 위치한 Y, G, K, K대학의 태권도 시범단 지도자에게 연락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후, 자료수집에 대한 각 팀 지도자의 협조 및 동의를 구하였으며, 연구자와 보조 연구자로 구성된 3명이 사전에 조율된 설문조사 가능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설문을 완성하였다. 설문 절차는 먼저 시범단원들에게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공지하였다. 또한, 설문 작성을 완성하였어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조사 자료에 대한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여 자발적 참여의사를 보인 단원에게만 설문을 진행한 후, 작성이 완료된 자료는 현장에서 즉시 회수하였다.

4. 자료처리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6.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 신뢰도 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Excel 20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VE 및 개념신뢰도를 계산하였다. 이후 AMOS 26.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모형검증과 구조방정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동일성 검증과 다집단 구조방정식분석을 실시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때, 조절효과 분석은 대응별 모수비교분석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alpha=.05$ 로 설정하였다.

Ⅲ. 결 과

1. 측정모형 검증 결과

연구에 사용한 검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모든 변인을 포함하는 측정모형을 적용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측정모형분석 결과

변인	하위요인	λ	t	AVE	C.R.	α
성실성		.715	-			
		.737	10.039***	.710	.880	.793
		.785	10.653***			
능력		.802	-			
		.814	13.118***	.780	.914	.853
		.819	13.221***			
지도자 신뢰		.779	-			
	일관성	.801	12.512***	.741	.895	.840
		.814	12.748***			
충성심		.771	-			
		.812	12.546***	.783	.894	.828
		.771	11.794***			
개방성		.812	-			
		.817	12.840***	.741	.896	.833
		.741	11.425***			
자신감		.563	-			
		.592	6.323***			
		.653	6.719***	.503	.883	.754
경기력		.719	7.070***			
		.537	5.920***			
	집중력	.524	-			
정신력		.555	5.958***	.556	.857	.749
		.841	7.271***			
		.770	7.114***			
정신력		.681	-			
		.805	8.689***	.621	.829	.725
		.592	7.220***			

*** $p<.001$

표 3.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인	M	SD	왜도	첨도	성실성	능력	일관성	충성심	개방성	자신감	집중력	정신력
성실성	3.80	0.61	0.28	-0.38	1							
능력	3.78	0.65	0.20	-0.43	.741**	1						
일관성	3.77	0.68	0.15	-0.55	.669**	.762**	1					
충성심	3.83	0.65	0.14	-0.73	.661**	.651**	.769**	1				
개방성	3.78	0.66	0.08	-0.47	.605**	.582**	.661**	.746**	1			
자신감	3.25	0.58	0.40	0.49	.291**	.250**	.242**	.218**	.154*	1		
집중력	3.63	0.61	0.09	-0.30	.275**	.206**	.235**	.283**	.210**	.467**	1	
정신력	3.72	0.62	-0.10	0.02	.330**	.253**	.258**	.312**	.256**	.489**	.523**	1

** $p < .01$, * $p < .05$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타당도 검증 분석결과 각각의 하위요인을 설명하는 문항의 요인 부하량(λ)은 .5이상

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의 적합도는 $\chi^2=671.494$, $df=296$, $p<.001$, $TLI=.907$, $CFI=.909$, $RMSEA=.077$, $RMR=.044$ 로 나타나서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이후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AVE, 개념신뢰도 계산 그리고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해본 결과 <표 2>와 같이 모두 비교적 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서 연구를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 결과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조방정식분석에 앞서서 지도자신뢰와 경기력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3>에 제시된 것처럼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왜도, 첨도의 수치는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 역시 각각의 하위 요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지도자신뢰가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태권도 시범단원이 인식하는 지도자신뢰가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4>에 제시된 것과 같이 지도자 신뢰가 경기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31$, $t=-4.863$, $p<.001$).

표 4. 지도자신뢰가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경로	경로계수	S.E	t
신뢰 → 경기력	.431	.070	4.863***

*** $p < .001$

Goodness of fit test: $\chi^2=61.442(df=19)$, $p<.001$, $CFI=.954$, $TLI=.932$, $RMR=.014$

4. 측정동일성 검증 결과

태권도 시범단원이 인식하는 지도자신뢰가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태권도 시범단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써, 후속 절차인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측정모형을 바탕으로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측정 동일성은 요인계수 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한 χ^2 검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표 5>에 제시된 것과 같이 성별($\Delta\chi^2=15.677$, $\Delta df=19$, $p=.679$), 학년($\Delta\chi^2=15.783$, $\Delta df=19$, $p=.672$), 수련기간($\Delta\chi^2=25.003$, $\Delta df=19$, $p=.160$), 국내대회 입상경력($\Delta\chi^2=7.033$, $\Delta df=19$, $p=.672$), 그리고 국제대회 입상경력($\Delta\chi^2=28.761$, $\Delta df=19$, $p=.070$)등 모든 부분에서 χ^2 검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표 5. 배경변인에 따른 측정동일성 검증 결과

구분	모형	χ^2	df	$\Delta\chi^2$	Δdf	p
성별	free	1121.170	592	15.677	19	.679
	λ 제약	1136.847	611			
학년	free	1131.954	592	15.783	19	.672
	λ 제약	1147.737	611			
수련 기간	free	1166.980	592	25.003	19	.160
	λ 제약	1191.984	611			
국내 입상	free	1127.008	592	7.033	19	.994
	λ 제약	1134.042	611			
국제 입상	free	1148.836	592	28.761	19	.070
	λ 제약	1177.597	611			

note. $\alpha=.05$, $df=19$, χ^2 기각 기준치= 30.14, Δ =변화량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도 불구하고 검사도구의 내용을 동일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조절효과 검증 결과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학년, 수련기간, 국내입상 경력, 국제대회 입상경력 등 모든 요인에서 조절효과 검증이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서 다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 검증 결과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남자집단과 여자집단 모두 지도자신뢰가 경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자 $\beta=.370$, $df=38$, $p<.001$; 여자 $\beta=.607$, $df=38$, $p<.001$). 구체적으로 <표 6>에 제시된 것과 같이 여자집단의 경로계수가 남자집단의 경로계수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대응별 모수비교분석의 결과는 $Z=4.60$ 으로 기각 기준치인 1.96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러한 결과는 지도자신뢰 → 경기력의 경로는 학년에 따른 조절효과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 결과

경로	남자			여자			Z
	B	β	SE	B	β	SE	
A → B	.279	.370***	.080	.592	.607***	.159	1.752

*** $p<.001$,

note 1. A=지도자신뢰, B=경기력

note 2. Z: $\alpha=.05$ 수준의 기각 기준치 ± 1.96

2) 학년에 따른 조절효과 검증 결과

학년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저학년 집단과 고학년 집단 모두 지도자신뢰가 경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저학년 $\beta=.369$, $df=38$, $p<.001$; 고학년 $\beta=.645$, $df=38$, $p<.001$). 구체적으로 <표 7>에 제시된 것과 같이 고학년 집단의 경로계수가 저학년 집단의 경로계수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대응별 모수비교분석의 결과는 $Z=4.60$ 으로 기각 기준치인 1.96을 넘지 못했으며, 이러한 결과는 지도자신뢰 → 경기력의 경로는 학년에 따른 조절효과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표 7. 학년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 결과

경로	저학년			고학년			Z
	B	β	SE	B	β	SE	
A → B	.319	.369***	.089	.389	.645***	.124	.460

*** $p<.001$,

note 1. A=지도자신뢰, B=경기력

note 2. Z: $\alpha=.05$ 수준의 기각 기준치 ± 1.96

3) 수련기간에 따른 조절효과 검증 결과

수련기간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련기간이 10년 미만인 집단과 10년 이상인 집단 모두 지도자신뢰가 경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0년 미만 $\beta=.526$, $df=38$, $p<.001$; 10년 이상 $\beta=.290$, $df=38$, $p=.046$). 구체적으로 <표 8>에 제시된 것과 같이 10년 미만 집단의 경로계수가 10년 이상 집단의 경로계수보다 통계적 유의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응별 모수비교분석의 결과는 역시 $Z=-2.868$ 로 기각 기준치인

2.58($\alpha = .01$)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지도자신뢰 → 경기력의 경로는 수련기간에 따른 조절효과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표 8. 수련기간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 결과

경로	10년 미만			10년 이상			Z
	B	β	SE	B	β	SE	
A → B	.319	.369***	.089	.389	.645***	.124	-2.868

*** $p < .001$,

note 1. A=지도자신뢰, B=경기력

note 2. Z: $\alpha = .01$ 수준의 기각 기준치 ± 2.58

4) 국내입상 입상경력에 따른 조절효과 검증 결과

국내대회 입상경력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입상경력이 4회 미만 집단과 5회 이상인 집단 모두 지도자신뢰가 경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회 미만 $\beta = .400$, $df = 38$, $p < .001$; 4회 이상 $\beta = .450$, $df = 38$, $p = .010$).

표 9. 국내대회 입상경력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 결과

경로	4회 미만			4회 이상			Z
	B	β	SE	B	β	SE	
A → B	.339	.400***	.087	.306	.450*	.118	-.222

*** $p < .001$, * $p < .05$,

note 1. A=지도자신뢰, B=경기력

note 2. Z: $\alpha = .05$ 수준의 기각 기준치 ± 1.96

구체적으로 <표 9>에 제시된 것과 같이 국내대회 입상경력이 4회 이상 집단의 경로계수와 4회 미만 집단의 경로계수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응별 모수비교분석의 결과는 역시 $Z = -.222$ 로 기각 기준치인 1.96을 넘지 못했으며, 이러한 결과는 지도자신뢰 → 경기력의 경로는 국내대회 입상경력에 따른 조절효과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5) 국제대회 입상경력에 따른 조절효과 검증 결과

국제대회 입상경력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입상경력이 없는 집단과 입상경험이 있는 집단 모두 지도자신뢰가 경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상경험 무 $\beta = .335$, $df = 38$, $p < .001$; 입상경험 유 $\beta = .445$, $df = 38$, $p = .007$). 구체적으로 <표 10>에 제시된 것과 같이 국제대회 입상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로계수와 국제대회 입상경험이 없는 집단의 경로계수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응별 모수비교분석의 결과는 역시 $Z = .075$ 로 기각 기준치인 1.96을 넘지 못했으며, 이러한 결과는 지도자신뢰 → 경기력의 경로는 국제대회 입상경험에 따른 조절효과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표 10. 국내입상 경력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 결과

경로	입상경험 무			입상경험 유			Z
	B	β	SE	B	β	SE	
A → B	.335	.433***	.081	.347	.445**	.128	.075

* $p < .05$,

note 1. A=지도자신뢰, B=경기력

note 2. Z: $\alpha = .05$ 수준의 기각 기준치 ± 1.96

IV. 논의

이 연구는 태권도 시범단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식하는 지도자 신뢰가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성별, 학년, 그리고 수련기간과 같은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여 현장과 후속연구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지도자신뢰와 경기력의 일반적인 관계를 확인한 후 성별, 학년, 수련기간, 국내대회 입상경력, 그리고 국제대회 입상경험 유무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연구의 결과에서 도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첫째, 태권도 시범 단원이 인식하는 지도자 신뢰는 성별, 학년, 국내대회 입상 경력, 그리고 국제대회 입상 경력

에 따른 차이가 없이 모든 부분에서 경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수들이 지도자를 신뢰하거나 혹은 지도자와 선수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루는 것이 선수들의 경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김단경, 김지태, 김영준(2014), 박성립(2019), 이경현, 장세용(2019), 장세용(2019b), Jang & so(2017b)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이와 같은 결과는 태권도 시범단원들이 인식하는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될수록 경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잘 알려진 것과 같이 훈련 과정과 경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지도자의 긍정적인 피드백 등을 바탕으로 형성된 지도자에 대한 선수들의 신뢰는 경기력에 긍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태권도 시범단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태권도의 품새 종목을 포함하는 시범은 자기수련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종목 특성으로 인하여 훈련 과정에서 지도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며, 동시에 존중과 존경을 기본으로 하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요구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대학 시범단의 경우 시범 구성 내용을 지도자와 단원이 함께 공유하고 연습을 통해 최종 세트를 결정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시범을 완성 한다는 점에 근거할 때, 태권도 시범은 우수한 경기력을 발휘하기 위해 지도자에 대한 시범단원들의 깊은 신뢰가 반드시 요구되는 종목의 특성을 보여주는 종목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태권도 시범 종목의 경우 지도자가 시범 단원들과 깊은 유대감으로 상호작용 하는 특성을 지닌 종목으로써, 지도자에 대한 신뢰는 훈련 상황과 함께 경기 상황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도자와 선수의 관계는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훈련과 경기에 대한 승리 등의 공통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집단이라는 주장(노충균, 장세용, 2016; Jang & so, 2017a, 2017b; Jowett & Poczwardowski, 2007; Rhind & Jowett, 2010)에 근거할 때, 태권도 시범 지도자들은 시범단원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개인 맞춤형 피

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이 반복될 때 지도자의 신뢰가 더욱 강하게 형성되고, 결과적으로 태권도 시범단원의 경기수행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둘째, 지도자 신뢰와 경기력의 관계는 태권도 시범단원들의 수련 기간에 따라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도자들과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추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범단원들이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강하게 형성하고 결과적으로 경기력에 긍정적인 영향이 더욱 강하게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지도자 신뢰와 경기력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배경변인의 조절효과를 직접 검증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어서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배경변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의 결과로 일부 설명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태권도 선수들의 운동경력을 바탕으로 조절효과를 분석한 연구들 대부분에서는 경기력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자신감과 그릿, 그리고 인지된 경기력과 같은 변인들은 운동 경력이 높은 집단이 운동 경력이 낮은 집단의 선수들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된다(Hays, Thomas, Maynard, & Bawden, 2009; Jang, So, 2017b; Jang, Eom, Choi, Choi, Kang, Lee, & Cho, 2018)는 점에서 이 연구의 결과와 일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도자 신뢰나 혹은 경기력과 같은 심리변인과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지도자-선수 상호작용과 자신감과 같은 유사한 심리변인들 간의 관련성이 운동 경력에 의한 조절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에 따르면(Kang & Jang, 2017; Jang, So, 2017a, 2017b), 운동경력이 많은 선수들일수록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강한 자신감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이경현, 장세용, 2019; 장세용, 2019b; Hays et al., 2009; Jang & so, 2017b; Jang et al., 2018). 또한, 훈련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부정적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과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고하고 있으며(Kang & Jang, 2021; Jung, Kang, & Jang, 2021)이와 같은 결과로 인하여 경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범 공연의 세트 구성이 지도자와 시범단원의 공유를 통해 완성된다는 점에 근거 할 때, 이 연구에서 수련기간에 따른 조절효과가 나타난 결과는 수련기간이 짧은 단원보다 오랜 시간 수련을 진행 하며 다양한 훈련 방법과 시범 공연을 경험한 단원이 지도 자와 보다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 라고 해석 가능하다. 따라서 현장의 지도자들은 수련기간 이 비교적 짧은 시범단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훈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V. 결 론

이 연구는 태권도 시범단원이 인식하는 지도자 신뢰가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배경변인에 따른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과 조절효과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대학 태권도 시범단원들이 인식하는 지도자신뢰는 성별, 학년, 국내대회 입상 경력, 그리고 국제대회 입상 경력에 따른 차이가 없이 모든 부분에서 경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 태권도 시범단원들이 인식하는 지도자신뢰와 경기력의 관계는 수련 기간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련기간이 긴 집단의 영향력이 수련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연구는 대학 태권도 시범단원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식하는 지도자 신뢰가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는 점과, 비교적 초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태권도 시범 종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현장과 후속연구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태권도의 종목 중 시범 종목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겨루기와 품새 종목 특성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다양한 심리변인들 중 지도자신뢰와 경기력만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점을 보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태권도의 겨루기, 품새 종목을 포함하는 비교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지도자신뢰와 경기력 외에 다양한 심리변인을 추가한 연구가 진행되어 현장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학문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연구가 발표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현우, 장세용(2021a). 청소년 태권도 선수들의 마음챙김, 긍정심리자본 및 정신력의 관계. **무예연구**, 15(3), 125-145.
- 강현우, 장세용(2021b). 대학 태권도 선수들의 긍정심리자본과 경기력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무예연구**, 15(2), 201-220.
- 김단경, 김지태, 김영준(2014). 스포츠볼 선수의 지도자 신뢰, 자기관리, 심리기술, 인지된 경기력의 인과 관계.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8(3), 17-33.
- 김은지, 정명규, 임신자(2018). 대학 태권도시범단원의 운동스트레스와 운동몰입, 운동만족의 관계.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2(2), 43-58.
- 김현식(2007). 스포츠지도자의 리더십과 지도자 신뢰 및 선수만족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9, 45-55.
- 노충균, 장세용(2016). 대학 태권도 품새 선수들의 지도자 선수 상호작용이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55(6), 185-194.
- 박성립(2019). 핸드볼 선수들의 지도자신뢰와 스포츠자신감의 관계에서 경기수행능력의 매개효과. **한국스포츠학회지**, 17(3), 865-873.
- 이경현, 강현우(2019). 대학 태권도 지도자의 자율성지지 코칭행동이 선수들의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그릿의 매개효과. **한국체육학회지**, 58(6), 89-99.
- 이경현, 장세용(2019). 태권도 선수의 통제적 코칭행동

- 과 중도포기의도의의 관계: 실패내성의 매개효과 검증. **무예연구**, 13(4), 113-132.
- 이주형(2011). 체조지도자의 리더십과 지도자신뢰 및 경기력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9(4), 71-79.
- 장세용(2019a). 태권도 겨루기 선수들의 그릿과 스포츠자신감의 관계. **한국스포츠학회지**, 17(2), 1125-1136.
- 장세용(2019b).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들의 지도자-선수 상호작용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무예연구**, 13(2), 29-46.
- 조민선, 김현식, 이제행(2005). 여자유도선수와 지도자의 신뢰형성하기. **한국체육학회지**, 44(2), 513-522.
- 최진철, 장세용(2017).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들의 성취 목표성향과 자기관리 및 스포츠자신감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56(1), 217-230.
- Clark, M. C., & Payne, R. L. (1997). The nature and structure of workers' trust in management,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8, 205-224.
- Hays, K., Thomas, O., Maynard, I., & Bawden, M. (2009). The role of confidence in World Class sport performance. *Journal of Sport Science*, 27(11), 1185-1199.
- Ickes, W. J., & Duck, S. (2000). *The social psychology of personal relationships*. New York: Wiley.
- Jang, S. Y., & So, W. Y. (2017a). The effect of short-term outdoor Taekwondo training on the concentration and mood of Taekwondo players. *Journal of Mens Health*, 13(2), 67-75.
- Jang, S. Y., & So, W. Y. (2017b). Taekwondo Coach-Athlete interaction and perceived performance: A comparison between two Taekwondo styles, gyeorugi and poomsae. *Journal of Mens Health*, 13(2), 34-39.
- Jang, S. Y., Eom, H. J., Choi, W. M., Choi, Y. L., Kang, H. W., Lee, K. D., & Cho, E. H. (2018). Validation of a questionnaire that surveys confidence in sports among Korean competitive athletes. *Journal of Mens Health*, 14(2), e30-e41.
- Jowett, S., & Poczwardowski, A. (2007). *Understanding the coach-athlete relationship*. *Social Psychology in Sport*. Champaign, IL: Human Kinetics, pp. 3-14.
- Jung, Y. S., Kang, H. W., & Jang, S. Y. (2021). The effects of high school basketball player's sports participation motivation on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achievement behaviors. *Iran Journal of Public Health*, 50(10), 1953-1962.
- Kang, H. W., & Jang, S. Y. (2017). Effects of competition anxiety on self-confidence in soccer players: Modulation effects of home and away games. *Journal of Mens Health*, 14(3), 62-68.
- Kang, H. W., & Jang, S. Y. (2021). Self and relative effects of competitive state anxiety on perceived performance in middle and high school Taekwondo athletes: An actor and 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nalysis. *Iran Journal of Public Health*, 50(6), 1167-1176.